

클래식·국악 선율로 여는 새해…‘신년음악회’ 향연

카메라타전남 내일·광주시향 16일 무대 ‘다채’

9일 GS칼텍스 예술마루·17일 광주문화전당도

새해의 문을 여는 신년음악회가 광주·전남지역 공연장을 수놓는다. 클래식 오케스트라부터 국악과 현대 감성이 어우러진 무대까지, 각기 다른 빛깔의 음악회가 이어지며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풍성한 음악 선물이 관객들을 기다린다.

먼저 카메라타전남 오케스트라는 8일 오후 7시 30분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신년음악회’를 갖는다.

전남대 예술대학 음악학과 총동문회가 주최하는 이번 무대는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와 지역사회·대학 간 협력 기반 구축을 목표로 전남대 RISE 사업단의 후원으로 마련된다.

경쾌한 관현악 서곡을 시작으로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와 ‘이고르 공’ 중 ‘풀로베조인의 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중 1악장 등으로 무대를 채운다. 오페레타 ‘주디타’ 중 ‘내 입술, 그 입맞춤은 뜨겁고’, ‘우페한 미망인’ 중 ‘입술은 침묵하고’ 등도 무대에 올린다.

지휘자 박인숙이 지휘봉을 잡고, 피아니스트 동수정, 소프라노 윤한나, 바리톤 손승범, 바이올리니스트 정산하 등이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GS칼텍스 예술마루는 9일 오후 7시30분 대극장에서 ‘신년음악회’를 연다.

차세대 지휘자 정한결과 디토 오케스트라,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바이올리ニ스트 대니구가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불프강 애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작품으로 채운다.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통해 활력 넘치는 선율로 공연의 시작을 알리며, ‘바이올린 협주곡 3번’으로 절제된 기교 가운데 경쾌함을 느낄 수 있을 전망이다. 마지막은 교향곡 41번 ‘주피터’로 장식, 고전주의 교향곡의 정점을 선사한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16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402회 정기연주회이자 신년음악회 ‘만남’을 펼친다.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이병욱이 지휘를 맡고, 협연자로 전통 사물놀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와 협연해온 사물놀이 폐 사물광대와 소프라노 문현주가 무대를 꾸민다.

최성환의 ‘아리랑 환상곡’이 웅장한 오케스트라 사운드로 선사되고, 강준일의 사물놀이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마당’이 연주된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서곡을 비롯해 프란츠 레하르의 오페레타 ‘주디타’ 중 ‘내 입술, 그 입맞춤은 뜨겁고’, 일금수의 ‘강 건너 불이 오듯’,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전통과 번개 폴카’, ‘사냥 폴카’, ‘봄의 소리 월츠’가 차례로 연주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17일 오후 5시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2026 ACC 신년음악회’를 선보인다.

ACC재단 설립 4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무대는 국립민속국악원과 국립남도국악원, 국립국악관현악단 등 국내 대표 국악 예술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전통 국악과 현대가 어우러진 무대를 보여준다.



국립민속국악원의 ‘연흥무’ 무대 모습.



사물광대

광주교육 역사 ‘학교’에 쌓인 시간 정리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근대 광주 학교 이야기’ 발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노경수)은 근·현대 광주 학교의 형성과 일상을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정리한 단행본 ‘근대 광주 학교 이야기’를 발간했다.

‘근대 광주 학교 이야기’는 그동안 제도사나 개별 학교가 위주로 단편적으로 다뤄져 온 광주 교육의 출발을, 학교라는 공간과 일상의 층위에서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최초의 종합 기록물이다. 광주 교육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교실·운동장·교문 안팎의 풍경을 통해 조망함으로써, 교육사와 도시사의 흐름을 함께 다룬다.



이 책은 학교의 공간과 일상을 중심으로 광주 교육의 형성과 변화를 입체적으로 복원한 기록물로 △학교의 풍경과 교실에서의 배움 △광주 학교 건물의 형성과 변천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교사들의 삶 △수업을 알리던 종소리의 변화 △교복·교사·교포 등 학교 상징을 통해 근대 광주 사회의 형성 과정을 담았다. 과거 신문과 각종 기록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로부터 학생·교사·시민까지 폭넓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기록의 지속 성과 공공성을 증시해 ‘책’이라는 형식을 선택했다.

앞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단행본 발간에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학술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옹관으로 증명한 마한문명…유네스코세계유산 신청

전남문화재단, 마한 옹관고분군 잠정목록 등재 신청

보존관리 체계 고도화·국제 학술교류 등 진행 계획도



나주 반남고분군

(재)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이 전남도·국립목포대와 협력해 ‘마한 옹관고분군’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했다.

이번 신청은 2018년도에 수립된 ‘마한문화권 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조사·연구와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향한 큰 걸음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단 국가유산연구소는 그동안 마한문화권 조사·연구를 해설 과제로 삼아 옹관 고분과 생산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학술연구, DB 구축을 지속해 왔을 뿐만 아니라 학술대회 개최와 연구총서 발간, 국가 사적 지정 등을 통해 마한문화의 실제와 가치를 체계적으로 규명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잠정목록 등재 준비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 자문, 국제학술대회 개최, 연구 보고서 발간 및 신청서 작성 등 마한 옹관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다각도로 검증하고 논리를 축적해 왔으며, 수치화 자문회의, 실무협의를 거쳐 유산명,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속성, 유산 범위 등을 확정했다.

나주 오량동 요지와 나주 반남·복암리 고분군, 영암 시종 고분군 등 4개 유산으로 구성된 마한 옹관고분군은 3세기~6세기 중엽까지 영산강 수계를

따라 옹관의 생산·유통·매장이 하나의 체계로 운영됐던 마한 사회의 정치·경제·장례 문화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유산의 핵심 가치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일반화되던 석곽·석실 대신에 마한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매장용기인 ‘옹관’을 최고 지배층의 무덤 중심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길이 2m 이상, 무게 300kg에 이르는 대형 옹관은 단순히 시신을 담는 매장 용기를 넘어, 흙으로 쌓은 무덤 안에서 매장 방식과 공간 구조를 결정하는 중심시설로 사용됐다. 이는 옹관고분 문화가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독보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오랑동요지에서 확인된 전문적인 옹관 생산 체계와 영산강 수로를 따라 연결된 반남·복암리·시종 고분군은 옹관 제작부터 운반, 매장에 이르는 전 과정이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연구소는 향후 국가유산청 심사를 거쳐 잠정목록 등재가 이뤄질 경우 본격적인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과 함께 보존관리 체계 고도화, 국제 학술교류, 교육·홍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체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한국창작수필작가회, 연간집 ‘이것저것 놀이’ 출간

하현규 작가 추모·회원 작품 등 구성

한국창작수필작가회(이사장 오덕렬)는 한국창작수필작가회 연간집(12집)인 ‘2025 이것저것 놀이’(풍백미디어 펴냄)를 최근 출간했다.

지난해 연간집 제호를 ‘이것저것 놀이’로 바꾼 이번 연간집은 원래 제호가 1호~8호까지는 회원들이 낸 작품명을 가지고, 회원 전체가 투표를 통해 제일 표를 많이 얻은 것을 표제어로 했다. 그동안 ‘비닐 속의 남자’와 ‘무장한 도시’, ‘수직 골목’, ‘바람의 집’, ‘겨울에 우는 빼꾸기’, ‘섬 냄새가 난다’, ‘노란

작품 등의 코너로 꾸며졌다. 오덕렬 이사장은 포함해 16명의 작품이 실렸으며, 눈에 띠는 것은 작품을 낸은 핵심 설계도인 ‘이것저것 놀이’를 작품 앞에 배치했다는 점이다.

오덕렬 이사장은 “창작의 기본 구조는 ‘이것’을 ‘저것’으로 형상화(形象化)하는 일이다. 이런 형태의 책은 작품집·연간집 통틀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다. 창작문학의 작품을 슬그머니 내보인 것이다. ‘이것저것 놀이’는 창작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